

어르신을 위한 올바른 복용 길잡이



65세 이상 어르신은

▶ 10명중 8명은
만성질환이 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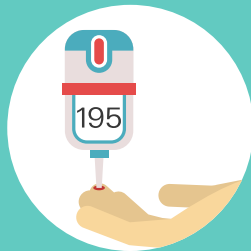


▶ 4명 중 1명은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요.

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이 많아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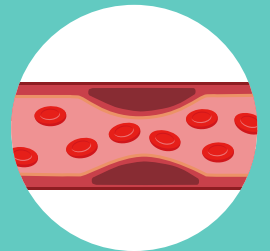
고혈압



당뇨병



골관절염



이상지질혈증



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
▶ 약의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.

나이가 들수록
체내에서 정상적인
약 대사·배설이
어려워요.

+

많은 약을 복용해서
복잡한
상호작용이
생겨요.



따라서
치료 효과와 **부작용**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.

여러 가지 약을 복용한다면 주의하세요!

▶ 어르신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아요.



졸림, 진정작용



입마름



변비, 소변불편



피로감



인지능력저하



부종



어지러움



소화불량, 속쓰림

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

약의 부작용인지 먼저 의심해 보세요!

1 증상을 치료하는 약을 먹기 전에

발이 부어서
신발이 불편하네...



2 약의 부작용인지 의심해보고

고혈압약이 바뀌었다고 했는데...
약 때문에 붓는걸까?



3 의사·약사와 꼭 상담하세요.

병원에
확인해 봐야겠어!



가나다 하세요!



가능하면 단골 병원과 단골 약국을 정해서 다니세요.

- 여러 병원에 다니거나 여러 의사에게 치료받는 경우에는 같은 효능의 약을 중복해서 처방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같은 효능의 약을 중복으로 드시면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.
※효능 중복이 자주 일어나 주의가 필요한 약: 해열·진통·소염제, 위장약
- 단골 병원이나 단골 약국에서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상담하여 약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도록 합니다.

가나다 하세요!



나의 약을 모두 알리는 습관이 필요해요.

- 새로운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에는 복용하는 약 (전문의약품, 일반의약품, 건강기능식품, 한약)을 전부 알려야 합니다.
- 의약품 알레르기 및 부작용의 여부도 알리도록 합니다.
- 복용하는 약의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좋습니다.

가나다 하세요!



다른 새로운 약을 드시거나 약을 중단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.

- 약의 부작용을 새로운 증상 또는 질환으로 오해하여 약을 추가로 복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새로운 약을 드실 때에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.
-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치료하는 질환이나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없이 중단하지 않도록 합니다.

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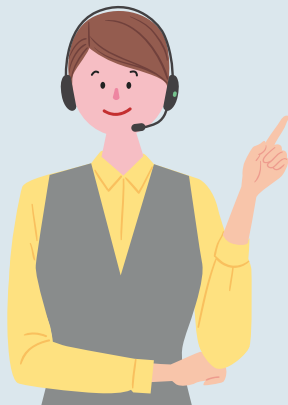
<https://karp.drugsafe.or.kr>



(14051)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, 5층
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

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신청 상담

보호자가 대신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.



1644-6223

또는

14-3330

